

하이틴 스타 이종석 서른에 로코로 활짝 피다

'로맨스는 별책부록' 3040팬 흡수 소속사 이적 후 연기 폭도 확장



하이틴 스타 이종석이 만 서른에 첫 로코(로맨스 코미디)로 30~40대 여성까지 사로잡으며 또 한 단계 성장했다. 이종석의 첫 로코작인 데 더해 파트너가 아무래도 돋보였는데, 로맨스가 깊어지는 후반부 로코로 이종석의 힘이 두드러진다.

이종석은 오랜 세월 단이(이나영 분) 하나만을 지켜봐 왔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선블리 다가가지 못하는 은호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은호는 이혼 후 식비는 물론 집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 겨우 직장을 구한 단이를 소리 없이 응원해주는 '키다리 연하남'이다. 그랬던 은호가 최근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으면서 단이를 향한 애정 표현은 물론 질투까지 다양한 감정을 내보인다. 평소 이나영을 향한 이종석의 팬심에 탄탄한 연기력이 더해지면 서 로맨스 농도도 한층 짙어져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난주 방송에서 단이가 자신을 신경 쓰며 라이벌 서준(위하준)이 다쳤는데도 밴드를 건네지 않자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은 이종석표 로코 연기의 백미였다. '연상녀 연하남' 판타지를 실사화하며 중년 여성들까지 사로잡은 그에게 최근 화장품, 면세점, 의류, 잡화, 애플리케이션, 명품 시계 등 광고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3일 "‘로맨스는 별책부록’이 넷플릭스로도 방송되다 보니 해외 시청자들의 호의적인 반응도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광고 요청도 쇄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이종석의 군 대체복무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내달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한다. 이종석의 금명간 입대는 지난해부터 예상됐지만, 신생 기획사로 독립한 후 인기의 절정에서 2년간 볼 수 없게 되자 아쉽다는 안팎의 반응이 많다.

특히 그는 새 소속사 에이앤프로젝트에서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장르를 확장하고, 이재균 등 후배 배우와의 동반 성장에도 힘써 입지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그의 출연작들을 살펴보면 선구안이 돋보인다. 그를 스타 반열에 올린 '학교 2013'을 비롯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더블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대부분의 출연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으며 조금씩 장르를 확장해온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군 복무로 인한 공백에 대한 우려보다는 2년 후 또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어떤 장르로 뛴이 나갈지 기대가 더 크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종석이 새 회사 이적 후 대표 배우로서 책임감을 갖고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만큼 군 대체복무 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블랙핑크'가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 매거진 3월호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는 블랙핑크 단체 사진 1장과 멤버별 4장 등 총 5개 버전으로 제작됐다.

블랙핑크, 빌보드지 표지 장식

K팝 걸그룹 최초 ... '여왕들이 마침내 미국에 착륙했다'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 매거진 3월호 표지를 장식했다.

빌보드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랙핑크가 모델로 나선 빌보드지 표지와 이들의 인터뷰를 담은 커버스토리를 공개했다.

표지는 블랙핑크 단체 사진 1장과 멤버별 4장 등 총 5개 버전으로 제작됐다. 빌보드는 앞서 지난해 2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표지를 같은 방식의 총 8개 버전으로 선보여 완판을 기록했다.

빌보드는 블랙핑크 커버스토리에서 "미국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수년간 연습을 마친 K팝 여왕들이 마침내 미국에 착륙했다"고 이들의 미국 활동을 반겼다. 또 이들이 '뚜두뚜두'로 한국 걸그룹 사상 빌보드 '핫 100'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면서 "미국 내 K팝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최근 한국 음악 시장의 가장 큰 희망을 대변한다"고 잠재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빌보드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지수, 태국에서 온 리사, 호주에서 자란 로제, 뉴질랜드에서 유년기를 보낸 제니로 구성된 블랙핑크가 다국적 정체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음악, 비주얼,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로제는 "우리는 많은 한국 문화적 요소와 동시에 서구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강점을 밝혔다.

이들이 표지 지니 빌보드지 3월호는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된 뒤 1일부터 미국에서 실물 잡지로 만날 수 있다.

커버스토리에는 연습생 시절 이야기부터 K팝 아이돌로서의 삶 등 여러 주제로 진행된 블랙핑크의 인터뷰가 담겼다.

블랙핑크는 4월 12일과 19일 K팝 아이돌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이런 매출 없었다 ... '극한직업' 1천360억, '명량' 제치고 1위

제작비 대비 14배 ... '가성비 갑'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이 '명량'을 제치고 역대 개봉작 가운데 매출액 1위를 달성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극한직업'은 1일 기준 1359억5000만원의 극장 매출을 올렸다. 이는 종전 역대 1위인 '명량'의 매출액 1357억5000만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극한직업'의 누적 관객 수는 1583만명으로 '명량' (1761만명)보다 적지만, 극장 평균 요금



오르면서 매출액은 앞섰다. 한국영화 평균 관람 요금은 2014년 7619원에서 지난해 8286원으로

올랐다. '극한직업'은 높은 가성비(수익률)로도 주목 받는다. 총제작비 95억원을 투입해 14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개봉 6주차에도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하며 뒷심을 발휘 중이어서 매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1천만명을 넘은 영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작품은 '7번방의 선물'로 알려져 있다. 총제작비 58억원의 15배에 달하는 914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명량'은 총 190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7배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3.1운동 100주년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아이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톡 Talk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15 문자방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원소집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서태석>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공사장림기획 토론회 시민의회 스페셜	10 안녕하세요	10 3.1절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다카하시의 작은방 스페셜	10 통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40 KBS 뉴스 5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아이템(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삼겹살조림과 파리고추 멸치볶음>	17:15 마샤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6:00 한국기행(재) <몽처야 산다 1부 겨울을 부탁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형
07:00 레이디버그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극한 겨울 타기1부:눈의 왕국 카르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탐원 구조대	<오지, 봄이 오지 1부 거기서부터 봄이 오나 봄>
09:15 뽀로로 뽀로로	15:45 강철소년대 파이어로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즈	16:15 짝과 팡	22:45 글로벌 이빠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배워서 남줄(재)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4:50 세계의 드라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4일(음 1월 28일 庚子)

<p>子 36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대로 이루어지리라. 48년생 호과를 배가하는 상황이 설정 되리라. 60년생 사소한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72년생 적극적으로 타계 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84년생 끝까지 외관과 기교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89, 74</p>	<p>午 42년생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다. 54년생 한순간의 기분에 좌우된다면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66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78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 90년생 이의 앞에서 처연한 대답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0, 16</p>
<p>丑 37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49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61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일취월장하리라. 73년생 예상치 못한 마당에서 당혹스럽겠다. 85년생 장고 끝에 얻은 결정이 만사를 주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95, 93</p>	<p>未 43년생 유지가 무리함이라 따르지 않도록 하자. 55년생 만만찮은 상대가 나타나서 힘들게 한다. 67년생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79년생 관련 서면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91년생 지나치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4, 75</p>
<p>寅 38년생 보는 이의 마음만 안타깝게 할 것이다. 50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62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74년생 원칙만 고집하다가는 중요한 것을 놓친다. 86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선다. 행운의 숫자 : 31, 32</p>	<p>申 44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하다. 56년생 뒤져진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68년생 균형 속의 다채로움이 변명을 꾀한다. 80년생 단순한 비교는 오만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92년생 가까운 이와 의 사이에 발전적인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91, 05</p>
<p>卯 39년생 이번이 예상되니 각계의 현상에 주목 하라. 51년생 직접 행해야 얻는 바가 많겠다. 63년생 재앙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음을 알라. 75년생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87년생 어림잡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9, 46</p>	<p>酉 45년생 패재를 부르는 날이다. 57년생 즉시 받아들여도 록 해야겠다. 69년생 강이 바다에 이르는 듯한 대단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81년생 체면은 거두고 합리적으로 임 하여야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93년생 더불어 추진한다면 형세가 나아진다. 행운의 숫자 : 47, 82</p>
<p>辰 40년생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구조이다. 52년생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64년생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76년생 미리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88년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용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7, 20</p>	<p>戌 34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46년생 앞서간다면 역효과를 초래하리라. 58년생 이타심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 하면 된다. 70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2년생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6, 89</p>
<p>巳 41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53년생 한 쪽으로 치우친 상태에 놓여 있다. 65년생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무리가 없다. 77년생 승인이 있는 게 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라. 89년생 아무것이나 전혀 상관없이 개치 말라. 행운의 숫자 : 59, 76</p>	<p>亥 35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을 때가 되었느니라. 47년생 개별적으로 인식하라. 59년생 복덕의 원인이 있으면 과보는 따르게 마련이다. 71년생 골격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83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 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23, 33</p>